오늘은 40안입니다.

타입별로 넓게 지은 1차 후보입니다.
고르는 자리가 아니라, 함께 20안으로 좁히는 자리입니다.

소리 내어
불러 보세요.

이름은 눈이 아니라 입과 귀로 씁니다.
'○○의원'을 붙여서, 전화로 말하듯이.

첫인상은 메모만,
판단은 기준표로.

1 부르기 쉬움 · 2 고급 · 3 중 · 영 · 4 뜻은 원장님이,
5 상표 · 6 검색은 CBC가.

뜻을 한 번 들은 뒤
다시 보세요.

조어형은 처음 보면 낯섭니다.
지은 이유를 읽고 난 두 번째 인상이, 환자가 설명을 들은 뒤 느낄 인상입니다.

로고는
잊어 주세요.

글자체와 색이 입혀지면 어떤 이름이든 좋아 보입니다.
지금은 소리와 뜻, 세 언어 표기만으로.

가족과 실장님께
들려 주세요.

뜻을 설명하지 말고 이름만.
그 첫 반응이 소개받는 환자의 반응과 가장 가깝습니다.

오늘 여쭙는 것 세 가지

1 끌리는 안과 아닌 안을 표시해 주세요 — 이유는 한 단어면 충분합니다

2 A(뜻이 먼저)와 B(소리가 먼저) 중 더 끌리는 쪽

3 가족 · 실장님께 들려드릴 안 몇 개 — 다음 만남 전에